

[2010년 6월 12일 서울시 9급 국어 기출 문제와 해설]

- 웅진패스원 「신국어」 신동수 선생 -

※ 올해도 서울시는 문학 영역의 지식 평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들은 응시생들의 기억을 재구한 것이므로 실제 문제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서울시 출제 경향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문 1. 다음 중 정서법에 모두 맞는 것은?

- ① 칠흑-꺾발-화투-가자미식해-곰뱅이 ② 끝발-곰뱅이-실락원-텃새-시래기
- ③ 칠흙-돌멩이-호두-고깃국-시나브로 ④ 화토-호도-실낙원-고기국-두더지
- ⑤ 가자미식해-텃새-씨래기-두더쥐

정답 : ①

해설 : ① ‘칠흑’(漆黑, 옷칠처럼 검고 광택이 있음. 또는 그런 빛깔), ‘꺾발’(㉠노름 따위에서 좋은 꺾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 ㉡아주 당당한 권세나 기세), ‘화투’(花鬪, 48장으로 된 놀이딱지), ‘가자미식해’, ‘곰뱅이’ 등이 맞게 쓰였다. ‘식해(食醢 먹을 식, 짓갈 해)’는 ‘식혜(食醢 먹을 식, 초 혜)’와 다른 먹거리이다. ‘식해(食醢)’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쌀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으로, ‘생선젓’과 같은 말이며, ‘식혜(食醢)’는 쌀밥을 엿기름으로 삭혀서 설탕을 넣고 차게 식힌 음료로, ‘단술’, ‘감주(甘酒)’라고도 한다.

② ‘실낙원(失樂園)’이 맞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텃새’(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고 거의 한 지방에서만 사는 새)와 ‘텃새’(-貰, 터를 빌려 쓰고 내는 세. / -勢,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 의식이나, 뒷사람을 업신여기는 행동)는 구분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무청이나 배추의 잎을 말린 것은 ‘시래기’가 맞다. 기타, ‘호두’, ‘고깃국’, ‘두더지’ 등이 맞다.

문 2. 다음 중 사이시옷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차간(車間) ② 셋방(貰房) ③ 횃수(回數) ④ 숫자(數字) ⑤ 내과(內科)

정답 : ⑤

해설 : ①~④ 외에 ‘곳간(庫間)’, ‘뒷간(退間)’ 등,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개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기타 한자어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내과(內科)’, ‘초점(焦點)’, ‘시구(詩句)’, ‘대구(對句)’, ‘마구간(馬廐間)’, ‘전세방(傳貰房)’ 등으로 적는다.

문 3. 다음 중 ‘두역시니’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두엄을 장만하여 쌓아두는 자리
- ②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하나
- ③ 논이나 밭을 두 번째 가는 일
- ④ 짚이나 땀싸리로 바구니 비슷하게 엮어 만든 그릇
- ⑤ 눈이 둘 달린 것

정답 : ②

해설 : ‘두역시니’를 ‘야차(夜叉)’라고도 하는데, ‘겉은 순한 양 같으나 속은 두역시니 같다.’와 같이 쓰인다.

①은 ‘두엄자리’, ③은 ‘두벌갈이’, ④는 ‘둥우리’, ⑤는 ‘두눈박이’에 대한 서술이다.

문 4. 다음 중 한자어의 구조가 다른 것은?

- ① 樂山 ② 治國 ③ 修身 ④ 歸家 ⑤ 讀書

정답 : ④

해설 : ④ ‘歸嫁(귀가)’는 ‘집으로 돌아가다’로 술목 구조이며, 나머지는 모두 술보 구조이다. ① 樂山(요산-산을 좋아하다) ② 治國(치국-나라를 다스리다) ③ 修身(수신-몸을 닦다) ⑤ 讀書(독서-책을 읽다)

문 5.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적응성 ② 명확성 ③ 응용성 ④ 현장성 ⑤ 정통성

정답 : ⑤

해설 : 표준어의 발음법에 대한 대원칙을 정한 것이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근본 원칙에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문 6. 다음 중 복수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벌을 죄다/죄이다 ② 나사를 죄다/조이다
③ 벌레가 꼬다/꼬이다 ④ 물이 괴다/고이다
⑤ 쇠고기/소고기

정답 : ③

해설 : ‘꼬이다’의 준말은 ‘꼬다’이므로 ‘벌레가 꼬다/꼬이다’가 맞다.

문 7. 다음 중 의미가 중복된 것이 없는 문장은?

- ①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되었다.
② 미리 예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③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④ 어려운 난관을 뚫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했다.
⑤ 그날 이후 우리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정답 : ⑤

해설 : ① ‘과반수(過半數)’에서 ‘과(過)’가 ‘넘을 과’, 곧 ‘반수를 넘다’이므로, ‘과반수’와 ‘넘는’이 중복된다.

② ‘예습(豫習)’에서 ‘예(豫)’가 ‘미리 예’, 곧 ‘미리 익히다’이므로 ‘미리’와 ‘예습’이 중복된다.

③ ‘당시(當時)’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의미하므로, ‘그때’와 ‘당시’의 의미가 중복된다.

④ ‘난관(難關)’이 ‘(일을 해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고비’를 뜻하므로, ‘어려운’과 ‘난관’의 의미가 중복된다.

문 8.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뷔페-초콜렛-컬러 ② 컨셉-서비스-윈도 ③ 파이팅-악세사리-리더십
④ 플래카드-로봇-캐럴 ⑤ 앙코르-레포트-바비큐

정답 : ④

해설 : ① 초콜렛→초콜릿(chocolate), 컬러(color, 색상)/칼라(collar, 옷깃)

② 컨셉→콘셉트(concept), ③ 악세서리→액세서리(accessory), ⑤ 레포트→리포트(report)

문 9. 다음 소설에 나타난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애(貴愛)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 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 주고 그러지요. 이때는 그 레슬링 하는 그림책이 아니어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 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지만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
- ② 이상의 '날개'와 같이 내적 분석에 의존한 의식의 흐름 서술이 된다.
- ③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을 논평한다.
- ④ 외부 관찰에 의거하여 해설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
- ⑤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한다.

정답 : ⑤

해설 : 제시문은 주요섭의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일부로, 주변인물인 '나(옥희)'가 중심인물인 '어머니'와 '아저씨'의 행동을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한 작품이다.

①과 ②는 1인칭 주인공 시점, ③은 전지적 작가 시점, ④는 작가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문 10.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전후 시단의 변화 가운데 전통적인 서정시의 확대 과정이 주목된다. 서정주의 시세계는 시집 <귀족도> (1948) 이후 토착적인 정서에의 지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토착적인 언어의 시적 세련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 시 형태의 균형과 질서가 내재된 율조로부터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은 하나의 성과로 주목되는 것들이다. 서정주의 시는 1960년대에 들어와 그 자신의 시세계의 가장 깊은 심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는 설화적 세계에 빠져들고 있다. 그의 ()에 대한 관심이 반역사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설화적 공간은 시인의 상상력의 고향과도 같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① 민담 ② 전통 ③ 신라 ④ 백제 ⑤ 고구려

정답 : ③

해설 : 현대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서 개별 작가가 가진 작품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평문의 생략된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세대의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시인 서정주의 작품 경향을 살펴보면, 1930년대 문학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깊은 원죄 의식과 운명의 업보, 또는 생명 의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생명파(인생파)'의 경향을 띤 작품을 창작한다. 그런데 이후 1960년대에 이르게 되면 <신라초> (1961)에서부터 <동천> (1969)을 거치면서 '신라'라는 설화적 세계에 빠져들며, 신라 사상 및 불교 사상, 그리고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선적(禪的) 경지를 지닌 작품들을 창작한다. 이러한 동양적 정서의 색채는 1970년대의 <질마재 신화>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설화(신화)에 담긴 원시적 샤머니즘의 세계를 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

문 11.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김동인 - 배따라기, 광화사 ② 김동리 - 화랑의 후예, 병어리 삼룡이
③ 황순원 - 카인의 후예, 백치 아다다 ④ 이효석 - 메밀꽃 필 무렵, 봄·봄
⑤ 이상 - 날개, B사감과 러브레터

정답 : ①

해설 : 문학사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병어리 삼룡이'는 나도향, '백치 아다다'는 계용묵, 그리고 '봄·봄'은 김유정, 'B사감과 러브레터'는 현진건의 소설 작품이다.

12.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가벗은 아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가면 죽느니라 이리오면 사느니라 부르나니 발가숭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 ① 구체적이고 서민적인 소재가 많이 쓰였다.
② 강렬한 애정과 욕욕적인 표현이 많다.
③ 비판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④ 서경적이고 영탄적 속성이 강하다.
⑤ 자기 폭로적인 묘사와 암유의 표현이 많다.

정답 : ④

해설 : ④는 조선 전기 양반 시조의 특징에 해당된다.

문 13. 다음 작품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서동요-청산별곡-사미인곡-어부사시사-일동장유가
② 서동요-사미인곡-청산별곡-어부사시사-일동장유가
③ 서동요-어부사시사-청산별곡-사미인곡-일동장유가
④ 청산별곡-서동요-사미인곡-어부사시사-일동장유가
⑤ 청산별곡-서동요-어부사시사-사미인곡-일동장유가

정답 : ①

해설 : 국문학 장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주요 작품을 배열하는 문제이다.

'항가(서동요) - 고려속요(청산별곡) - 조선전기 가사(정철 '사미인곡') - 조선후기 시조(효종, 윤선도 '어부사시사') - 조선후기 가사(영조, 김인경 '일동장유가')'의 순서가 맞다.

문 14. 다음 신재효의 '광대가'에서 (가)~(라)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광대라 하는 것이 제일은 (㉠)치레
둘째는 (㉡)치레 그 지차 (㉢)이요
그 지차 (㉣)라 (㉤)라 하는 것이
구성지고 맵시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
위선위귀 천만변화 좌상의 풍류호걸
구경하는 노소남녀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이 구성 이 맵시가 어찌 아니 어려우리.
 (㉔)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육률을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아낼 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㉕)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옥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장 미부인이 병풍 뒤에 나서는 듯
 삼오야 밝은 달이 구름 밖에 나오는 듯
 새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㉖)은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관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 | | |
|----------------|----------------|
| 가 나 다 라 | 가 나 다 라 |
| ① 인물 득음 사설 너름새 | ②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 |
| ③ 사설 득음 너름새 인물 | ④ 득음 사설 너름새 인물 |
| ⑤ 너름새 사설 득음 인물 | |

정답 : ②

해설 : 동리 신재효(申在孝) 선생은 판소리 여섯 마당을 개작·정리하였으며, ‘광대가’를 지어서 판소리의 이론을 수립하고 ‘인물·사설·득음·너름새’라는 4대 법례 마련하였다.

제시문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문맥의 내용을 통해 추리한다. 우선 ㉔는 ‘구성지고(천연스럽고 구수하며 멋지고) 맵시(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 있’다고 했으므로 ‘너름새’이다. ㉕는 음률에 관한 내용이며 ‘오장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득음’임을 알 수 있다. ㉖는 ‘좋은 말’을 통해 ‘사설’을 추리하고, ㉗는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인물’을 추리한다.

문 1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은?

이 작품은 작자가 식영정(息影亭)을 찾아가 주인인 김성원이 산수에 묻혀 지내면서 모든 시름을 잊고 지내는 풍류스러운 삶을 칭송한 작품이다.

- ① 성산별곡 ② 관동별곡 ③ 사미인곡 ④ 속미인곡 ⑤ 장진주사

정답 : ①

해설 : 선택지는 모두 정철의 작품으로, ①~④는 가사 작품이고 ⑤는 사설시조이다. 제시문은 작자가 25세 때인 명종 15년(1560)에 지었다고 하는 가사(歌辭)에 대한 설명이다. 전라도 담양에 있는 성산(星山)의 춘하추동에 따라 변하는 자연 풍경과, 서하당(棲霞堂)과 식영정(息影亭)을 중심으로 한 김성원의 풍류를 노래한 작품이다.

문 16. 다음 시와 관련이 없는 것은? (※ 복원 불완전)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 | |
|----------------------------------|--------|
| ① 민요적 느낌 | ② <군말> |
| ③ <산유화> | ④ 김억 |
| ⑤ <바라건데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 |

정답 : ② (추정)

해설 : 복원 내용이 분명치 않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제시문으로 준 듯하다. ①은 김소월의 시풍과 관련되는 진술이고 ③과 ⑤는 김소월의 작품에 해당된다. 그리고 ④의 작가인 안서(岸曙) 김억(金億)은 이 땅에 상징주의 시를 번역 소개하여 한국 신시(新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김소월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런데 ②의 '군말'은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의 서문에 해당되며 김소월과 무관하다.

문 17.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인 것은? (※ 선택지 문장 복원 불완전)

- ① 입맛이 없을 때는 상치쌈을 먹는 것도 좋지.
- ② 시간이 없으니까 미숫가루라도 타 먹고 가자.
- ③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모처럼 날이 개었다.
- ④ 찌개가 남았으면 조금만 더 주구료.
- ⑤ 그럼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우?

정답 : ②

해설 : ① 상치쌈→상추쌈

- ③ 지리한→지루한 : '지리하다'는 '지루하다'를 잘못 쓰는 말이다.
- ④ 주구료→주구려 : '-구료'는 잘못 쓰인 말이고, 감탄·권유의 종결어미 '-구려'가 결합된다.
- ⑤ 바래우?→바라오? : 기본형 '바라다'의 어간 '바라' 뒤에 의문·명령·청유 종결어미 '오'가 결합된 모습이다.

문 1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 표기가 바른 것은? (※ 제시문 복원 불완전)

풍자란 사회 도덕의 이념과 인간의 행동 규범이 화해되어 현실이 불합리한 국면에 ...

- ① 閨範, 志向, 病弊, 施政, 內包 ② 規範, 指向, 病廢, 是正, 內包
- ③ 規範, 指向, 病弊, 是正, 內抱 ④ 規範, 志向, 病弊, 是正, 內包
- ⑤ 規範, 指向, 病弊, 施政, 內包

정답 : ④ (추정)

해설 : 생활 한자어의 표기 문제이다. 복원이 미흡하지만 정답의 추정은 가능하다.

- 規範(법 규, 법 범) :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 志向(뜻 지, 향할 향)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하거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 指向(가리킬 지, 향할 향) : 작정한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
- 病弊(병 병, 해질·나쁠 폐) : 병통과 폐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是正(옳을 시, 바로잡을 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內包(안 내, 쌀 포) :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문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복원 불완전)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白日)이 없을쏘냐.
머언 미개(未開)入적 유풍(遺風)을 그대로
성신(星辰)과 더불어 잠자고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熱愛)하되
삼가 애련(哀憐)에 빠지지 않음은
－ 그는 치욕(恥辱)임일레라.

－ 유치환, ‘일월(日月)’

- | | |
|--------|-----------|
| ① 국민문학 | ② 사회주의 |
| ③ 표현 | ④ 원초적 생명성 |
| ⑤ | |

정답 : ④ (추정)

해설 : 유치환의 시 ‘일월’은 강렬한 의지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지향을 노래한 시이다. ‘일월(日月)’이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밝히는 광명이며,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생명력의 원천을 상징한다.

선택지가 불완전하여 정답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시인은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목적 문학을 지향한 경향파 문학이나, 민족주의 계열의 국민문학파의 일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①과 ②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문 20. 다음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쓴 비평이다. 문학 이해의 방법 중 가장 가까운 것은? (※ 제시문 복원 안 됨)

-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표현론적 관점 ③ 효용론적 관점 ④ 구조론적 관점 ⑤ 절대론적 관점

정답 :

해설 :